

\*\*\*\*\*

새시대 교수법 153호 한국공학교육기술학회 / 조벽

\*\*\*\*\*

인생에는 두 가지 비극이 있다. 하나는 자기 마음의 욕망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그것을 하는 것이다.

-- 버나드 쇼

-----

TP or not TP 3. 바람직한 사용

시나리오 1. 교수님께서 TP를 환등기에 올려놓으셨다. TP의 글씨의 크기가 적절하고 내용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게 웬 일인가. 교수님께서 TP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줄줄 읽어내려 가시는 것이 아닌가. 나는 장님이 아닌데.... 따분해서 몸이 뒤틀려온다.

시나리오 2. 교수님께서 열의에 찬 강의를 하는 도중 TP를 환등기에 올려놓고 말씀을 계속 하셨다. TP에는 강의 내용과 연관된 최신 정보가 듬뿍 담겨있다. TP에 적힌 내용을 읽고 있는 중에 교수님의 말씀은 점점 희미하게 들려왔다. TP를 중간쯤 읽고 있을 때엔 이미 교수님의 말씀이 귀에 아예 들어오지 않는다. 아차 싶어 다시 교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지만 말의 줄거리를 놓쳐버려 무슨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된다. 어떤 거에다 집중한 답?

위의 두 시나리오는 TP(또는 PPT)가 잘 못 사용되는 흔한 예입니다. 학생들의 학습을 돕자고 동원된 TP가 오히려 학습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첫 시나리오는 TP에 실린 내용이 교수님의 말씀과 완전히 중복되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P가 잘못 사용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학습 내용을 TP에 그대로 옮겨놓고 학생들과 함께 읽어보는 것은 그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강조 방법은 가끔 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며, 학습 내용 중 가장 중요한 점을 요약해야 학생들에게 뜻 있는 행위로 보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말과 중복되는 TP를 상습적

으로 자주 쓰는 것은 효력이 없을뿐더러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TP 재료값이 아깝고 TP 준비에 드린 시간이 아깝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TP 내용이 교수님의 강의를 보완하는 경우입니다. TP에 실린 내용을 다 읽어보자면 적어도 2분은 족히 걸리는데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그에 부합하는 시간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교수님께서 "강의(말씀) 내용과 연관된 정보에는 이런 것도 있다" 정도로 가볍게 언급만 하실 의도였고 학생들이 TP를 슬쩍 훑어 보기만 바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TP가 스크린에 비치면서 학습 "무대"의 중앙을 장악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시선은 저절로 TP로 집중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무의식적으로도 끝까지 읽게 되지 않습니까? 교수님의 말씀이 "지방 방송"이 되어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TP가 스크린에 비추는 동안에는 그 TP에 나오는 내용을 설명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부만 설명하시고 싶으시면 학생들에게 미리 "지금은 이 부분만 살펴보길 바란다" 등 짤막한 한마디로 '시각 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잔소리 코너>

TP 사용에는 절대적으로 좋고 나쁜 방법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다만 목표에 적절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 학습 목표와 교수법 방법이 일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조벽, 2002

\*\*\*\*\*

이전 발간물은 웹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http://www.me.mtu.edu/~peckcho/korean.htm>

이 무료 간행물을 직접 받아 보시기 원하시면 subscribe teachwell-1 을 적어 peckcho@mtu.edu로 보내시면 자동 가입됩니다.

가입을 취소하실 경우에는 unsubscribe teachwell-1 을 적어 peckcho@mtu.edu로 보내시면 됩니다.

다른 사항은 조 벽 교수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peckcho@mtu.edu 전화: 미국(906) 487-2891 팩스: (906) 487-2822

\*\*\*\*\*